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8(土)	19(日)
한때 소나기 24 / 35℃	구름 많음 24 / 31℃

News

- 주가 또 폭락 ②
- 광주병무청 인터넷 방송국 ③
- U-17월드컵 오늘 개막 ⑧

Entertainment

- 최경주의 삶 드라마로 ⑧
- 배우들의 고군분투 ⑨

Wellbeing

- 여름 보양식 닭고기 ⑬



Jeollado

- 안준 전 광주시교육감 ⑦

Books

- 잊혀진 한국인 전범 ⑩
- '문명의 축소판' 지도 ⑪

유형별 1인 1과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태도 바뀌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이명박 “굳혔다”... 박근혜 “대역전”

■ 내일 한나라 경선 李 “압도적 지지로 불행한 결과 막아야” 朴 “완주 불가능한 사람 후보에선 안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틀 앞둔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캠프의 역량을 총동원해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양 후보는 특히 이날 오후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경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과 BBK 문제 등을 놓고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캠프 차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이명박 대세론'을 살렸지만 박 전 대표 측은 역전을 주장하는 등 서로 승리를 장담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이 전 시장은 겸중논란과 관련, "이 정권이 국정원과 국제청, 심지어 검찰까지 합세해 제

2. 제3의 김대업을 만들어 왔다"면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 BBK가 어떻다 하는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이 박 전 대표에 비해 5.6%~7.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또 박 전 대표 측의 '이명박 후보 사퇴' 요구를 경선결과 불복 및 탈당 수순을 밟는 절차로 규정하면서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만

이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회에서 박 전 대표는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 "(이 전 시장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검찰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갖다주면 된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추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BBK가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주인이 우리 당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나왔다"며 이 전 시장을 겨냥했다.

박 전 대표 측 허태열 직능총괄본부장도 이날 "이 전 시장은 '도곡동 땅'과 BBK 금융사기 사건 의혹 외에 사법처리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6건이나 된다"면서 "본선 완주가 불가능한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캠프의 이해훈 대변인은 또 "16일 밤 6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대표가 전국적으로 1.8%포인트 차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9일 모두 23만 1천652명의 경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20일 오후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달만의 귀환
지난달 19일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 중 탈레반에 의해 피랍됐다가 풀려난 김경자, 김지나 씨가 17일 오후 인도 델리발 아시아나항공 OZ76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항공기 계류장에서 손을 잡고 엠블런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자·김지나씨 귀국

“걱정 끼쳐 죄송... 남은 사람들 빨리 석방되길”

지난달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다 지난 13일 풀려난 김경자(37), 김지나(32)씨가 17일 귀국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들 2명은 이날 낮 12시19분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정부당국이 준비한 구급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오후 2시15분께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했다.

김경자씨는 귀국 첫 소감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려 죄송하고 그 걱정 덕분에 우리가 풀려났다"며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석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김씨는 승용차 세 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구급차를 타고 순식간에 병원 정문을 통과했다. 이들은 곧바로 7층 영관급 병실 1개실에 함께 입원해 가족과 만난 뒤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국은 이들의 아프간 억류생활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남아 있는 인질 19명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특별보호할 방침이다. 국군수도병원 정문에는 알자지라 방송 등 국내외 취재진 30여명이 나와 취재경쟁을 벌였으나 병원 측은 정문에서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화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표 문화전당 '3대 쟁점' 이견 여전

어제 서울 공청회... 문광부-광주시 주장 평행선

- ① 랜드마크 기능
- ② 전문공연장 건립
- ③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중 문화전당 랜드마크와 대형 전문공연장, 전당 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 등 3대 쟁점을 둘러싼 문광부와 광주시의 이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 오후 문광부 주최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서울공청회'에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동구 비상대책위 주민과 문화수도협의회, 시청 관계자 등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10가지 쟁점에 대한 종합토론

이 이어졌지만 핵심인 '3대 쟁점'에 대한 문광부와 광주시의 의견 대립은 여전했다.

문화전당 랜드마크와 관련해 문광부는 지하 위주로 설계된 당초 설계안을 절대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전당 설계안과 별도로 전문인접지에 랜드마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피뉘었다.

이에 대해 광주 동구비대위는 "대다수 시민들이 전당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문화수도 사업이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롯된 만큼 지상 건축물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광주 예총 등이 건의한 오페라, 뮤지컬 등 세계적인 공연

이 가능한 대형 전문공연장(2천석 규모) 건립안도 광주시측 주장으로만 간주됐다. 광주시 등은 세계 최고의 음악가 초청이나 공연을 위해서는 문광부가 구상한 다목적공연장인 아닌 전문공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문광부는 당초계획된 다목적공연장(2천석)과 소공연장(600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전문공연장은 전문용역을 통해 광주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전당 내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지역 미술계는 문화수도 이미지와 비엔날레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문화전당 안에 반드시 현대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전당 내의 복합 전시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미술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주시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종합계획 협의안을 발표할 뒤, 이날 오후 소회의실에서 지역 원로와 문화예술·시민단체·시의회·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수도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 종합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21일 '아시아문화체널 설립과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LANEIGE